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Yung Y. Shin Editor

VOL 5 NO. 3 & 4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R. APR. 1978



돌담(石牆) : 막돌 허튼총쌓기로 경사지에 낮으막하게 쌓는다.
Stone wall built on a slope.

회장 칼럼

금번 봉사 센터에 두분의 자리의 공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사무 처리의 책임자로서 "신 영운"씨가 되었습니다. 카운셀러 자리에 "지나. 램슨"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두분 다 신청한 분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분들 이었습니다. 신 영운 씨는 봉사센터 사무 처리와 또 회보 편집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두분 들께 많은 지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인학교 설립에 좋은 반응이 많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교 일자름 좀 연기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다음달인 5월 6 일로 연기를 했어오니 신청서를 계속 4 월 말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상세한 계획서를 입학 신청한 부모님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여러 부모님들과 교포 여러분들께 협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한인학교를 설립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보람이 있을 줄 압니다.

이사임원 공동회의

1978년도 제 2 차 이사 및 임원 공동회의를 3월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한인 봉사센터 사무실에서 오준걸이사장, 한만섭 이사, 김창성 이사, 김형진 회장, 박제인 부회장, 정명화 부회장, 최금순, 이신남, 켈 램슨, 이형상, 윤 부원, 신영운, 지나 램슨씨등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금년도의 추진할 계획 및 전년도 회계보고 및 금년도 예산안, 한인학교 문제, 한인회관건립위원회 구성문제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추진 중이던 한인학교의 개교에 관한 문제를 신중히 토의하여 우리의 소망인 한인 학교를 꼭 개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포 여러분께서 기다리시고 소망이신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우선 오 준걸 이사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한인회 창설 기념 기록 전시회"를 가을 예정으로 전시회 준비위원으로 오 준걸 이사장, 한만섭 이사, 김형진 회장, 박제인 부회장, 정명화 부회장을 각각 선출하여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워싱턴 부동산회사

Tel: 622-4120 WASHINGTON REALTY, INC.
510 Terminal Sales Building 1932 First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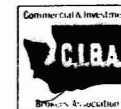
안병용

(PHILIP B. AHN, BROKER)
Office 622-4120
씨 아틀 838-2010
타코마 927-7778

박영민

(Mike Y. Park)
Off: 622-4120/Res: 838-4339

남서지역 북부지역 상업투자 타코마



부동산. 투자. 상담. 재산관리. 보험. 무료공증.

투고 환영

한인 회보는 약 1,500부 발송되고 있습니다. 교포들께서 보내 주시는 정성스런 원고는 성의껏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5일 까지 한인회 사서함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교포사회에 유익한 생활 정보나 문예작품, 논설, 기마등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광고 안내

한인회보에 광고를 내실 분은 매월 15일 이전으로 광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문제나 영업용등 광고 원고를 만드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연락전화: 624-7604, 624-7607.

편집 후기

안녕하십니까?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전임자인 이수호 씨로부터 업무를 새로 인수 받은 신 영운 입니다. 우선 그동안 편집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이수호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포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계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시기 바랍니다.

신 영운

회보 편집 검토

이번 회보는 오준걸 이사장께서 검토하셨습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바랍니다.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회는 한인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이고 또한 금년 부터는 한인학교를 개교하여 운영 할 예정입니다. 회보 발간과 사무실 운영비, 기탁 등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오늘날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은 10불씩이고 한 세대는 15불입니다. 보내실 때는 반드시 수표를 이용하여 주시고 "회비" 혹은 "기부금"이라고 구별하여 명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을 오려서 보내 주십시오.

이름	전화
회비	기부금
\$	\$

한인 회비 납부자 명단(3월23일현재)

- 10. 이 신 남 . . . 20 불
- 11. 천 창 봉 . . . 15 불
- 12. 강 경 중 . . . 10 불
- 13. 민 덕 기 . . . 11 불
- 14. 최 경 수 . . . 10 불
- 15. 박 기 동 . . . 10 불
- 16. 이 금 옥 . . . 10 불
- 17. 임 인 자 . . . 10 불
- 18. 이 삼 랑 . . . 20 불

기부금 납부자

- 15. 강 경 중 . . . 10 불

운전 면허 안내 번역 기부금

- 운 병 S, 운 장 K. 20 불



김 현 중 부동산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출산 이사를 위한 버드리.

 * 무료상담: 정확한 출생을 버드립시다.

 * 취급종류: 주택·아파트·호텔·도지

 * 정포·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7112

헨리장 여행사

 Henry Chang Travel Service

 국제 국내항공권 취급

 이민 상담

 재정보증서 작성


 Tel. (206) 523-7057

 9002 12th Ave. N.E.

 Seattle Wash. 98115

BEIKOKU

DRIVING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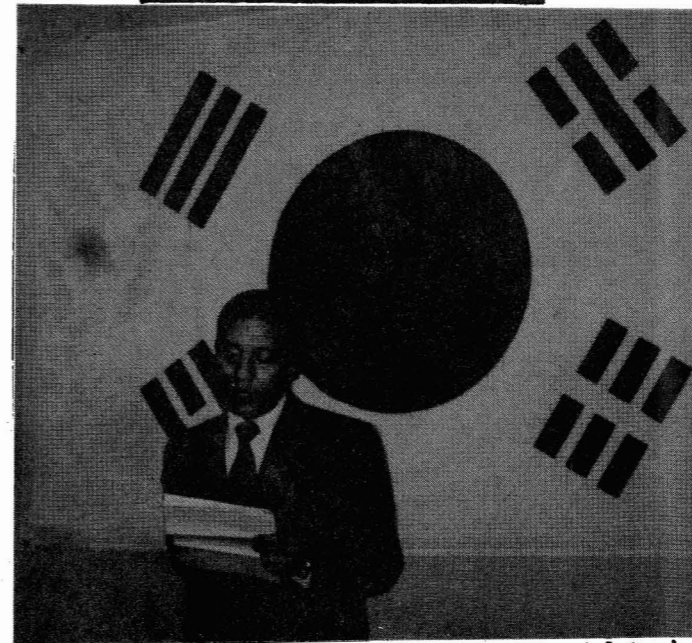
 PHONE

365-2312

 韓國 · 日本 · 中國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회비 인상여 따른 회비의 수입과 한인 축구단의 선수 각자에게 지급할 슈팅을 구입함에 따라 지출이 약간 늘게 되었는데 이 두가지를 수정하고서 이사 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금년도에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재정 관계는 아직 교육 위원회의 예산이 미비 되었으므로 다음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봉사부장이었던 켄 탐슨씨는 3개 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뉴 NEWS 스



3.1 절 기념 행사 **삼흥우영사**

씨애틀 와싱턴 총영사관에서는 지난 3월 1일 오후 7 시에 영사관에서 제 59회 삼일절 기념행사를 총영사관, 한인회 공동 주최로 거행하였습니다.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한인회 금년도 제 2 차 이사, 임원 공동 회의에서는 한인 회관 건립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고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고포 여러분의 경제적인 후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인 학교 개교

씨애틀 와싱턴 한인학교는 금년도 제 2 차 이사, 임원 공동회의의 결정에 따라 5월6일에 개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인학교의 재정상의 문제로 일년분 등록금을 1인당 20불을 받고 둘째아이는 10불, 그리고 셋째아이 부터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한인학교의 장소는 아택와 같습니다. 학교 시작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00시 부터 오후 1:00시 까지입니다. 또한 한인학교에서는 교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한인학교에서 강의를 맡아주시길 본은 한인회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24-7604, 624-7607.
 (장소) Ethnic Cultural Center (Chicano Room)
 3931 Brooklyn Ave. N.E. Sea.Wa. 98195

Corner of 40th Ave. N.E. & Brooklyn
 와싱턴 대학교 지역입니다.

입학원서

(씨애틀 한인학교)

이 양식을 오려서 보내십시오.

학생이름	한글		남	한국에서외학년		생년월일
	영문		여	현재학년		
주소						
학부형 이름	한글		전화			
	영문					
학생의 특기, 취미						
기타의 요망사항						

위와 같이 입학원서를 제출합니다.

서기 1978년 월 일 보호자 _____

국제언어문화대회

무역전람회

대한민국 무역진흥공사에서는 '78년도 봄 무역전람회'를 서울 남대문 전시관에서 많은 전시품을 갖고서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36일간 전시할 계획이라고 씨애틀 무역담당관이 발표하였습니다.

자랑하고픈 교포

한인회의 직원이 적어서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아시고 교포 두분이 무료로 봉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 동 한 : 763-9481 (편집)

문 금 성 : 937-5291 (상담, 안내)

미국 워싱턴 주 "국제 언어 문화 대회"가 1978년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리는데 이 대회에는 미국 서북 지방의 여러 단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한인회, 학생회 야유회 예정

한인회와 학생회는 공동 주최로 교포사회와 학생들 간의 유대를 강화 하기 위하여 5월 초순경 야유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연락을 지상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 축하합니다 *

지난회 한인회 부회장을 하신 암스트롱 여사께서 "보잉 컴퓨터 서비스"의 매니저로

차라리 한국에 나가서 4살짜리 딸도 보고 부모도 만나 보고 싶다. 친구들에게 미국 생활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꼭 죽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수한 대상 즉 남편에게 위협을 줌으로써 무슨 이득을 얻고 욕구를 만족 시키고자 하는 연극성을 띤 자살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남편이 이층에 있을때에 자기 결혼 사진을 꺼내어 "나 죽어!" 하고 한바탕 다투기도 했을 것이다. "나 죽으러 가요" 하고 사진을 들고 내려가면 속 썩민 사람이라도 달래줄 줄 알았는데 "해볼때면 마음대로 해봐"하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니 환김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불을 당겼을 것이다.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욕구좌절(후라스트레이손)의 반응이 자기 자신의 공격성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인간이란 여러가지의 심리적 메카니즘으로 자살을 한다. 어떤 종류의 정신병자나 노인들 같이 자아의 협소로 인한 자살, 공격과 도피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자살이나 또는 연극적으로 하는 자살이건간에 왜 자살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루우테가 말한 바와 같이 자살의 심리학적 인격의 연구에 귀착되어 버리는 문제인 것이다.

곽 중 세 씀

"시조"

五友歌

운 선도
내 벗이 며치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답오르니 괴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빛이 조박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 소태 맑다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뉘 업기는 물 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쇠이 지고
풀은 어이하어 푸르는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 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지거늘
솔아 너는 어이 논 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불휘 글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나무도 아닌것이 풀도 아닌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뉘었는다
저럭코 사시에 푸르니 그를 조하 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가마귀 싸우는 곁에

정도는모담
가마귀 싸우는 곁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내 가마귀
흰 빛을 색오나니
창파에 종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죽인다는 삶의 고통이나 때
배를 달갑게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쾌감조차 느끼는 변태적 경향이 있는 사람
에게 심할 때엔 죽음에도 달하게 되는 것
이다. 셋째로는 죽고 싶은 욕망이다. 이 욕
망은 가끔 번덕을 부리는 수가 많아서 자살
하겠다고 독약을 먹어놓고서는 몇분후엔 "사
람 살려 달라는 의사를 불러달라" 야단을 떠
우는 예는 가끔 본다. 후로이드의 죽음의
본질설을 글이 듣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과
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고 하는 행위에



새로개업한
동양식품점
11325 ROOSEVELT N.E.
365-5540
1. 부장식물
2. 들머복사

연극적인 요소가 많음을 부인 못할 것이
다. 여자나 소년, 소녀 층에 자살기도는
많이 하지만 죽는율은 기도에 비해 훨씬
적다. 그 비율이 6 대 1 이라고 스펀겔은
지적한다. 즉 여섯명이 죽으려 해서 한명
만이 정말로 죽는다. 과연 정확한 통계인
줄 모르지만 자살기도자 147명 중에서 자
기 혼자 있을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단지 4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안에
누가 있을때 시도했다. 다시 말하면 누군
가가 자기의 자살을 말릴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중에서 138명
은 그 후에 관찰해 보니 첫번에 실패한
자살을 되풀이 한예는 불과 22명이었고
정말로 악착같이 죽어버린 사람은 단 1
사람뿐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죽으려고 또는 죽는 시늉을 했을까? 김
여인은 건술한 147명중에 1 명뿐인 악착
같이 죽으려고 하는 마인드는 분명 아닌것
같다. 김 여인의 심리적 동기는 현실에
서 이루어지지 못할 욕구를 공상 속에
도 피시킴으로써 죽음을 동경하고 죽음을
미화했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처럼 젊은
여성층에 많은 이 경향이 김 여인에게 주
기성을 띄고 계속 유희했을 것이다. 남편
은 택시 운전사로 밖에만 나가고 (직업이
기만 부인은 엉뚱한 생각도 했으리라), 자
기는 아기만 보고 (남의 아기 베비 씨터하
듯 생각하고) 있으니 하루종일 따분한데

승진 발령 되었으며 밑에 100 명의 부하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씨애틀 교육청 교과서 기증

씨애틀 교육청에서는 한인학교의 개교와 발
전을 위하여 국민학교 교과서(한글) 13권을
한국어 담당이신 백 경숙 선생을 통하여 기
증해왔습니다. 또한 백 경숙 선생은 한인회
문구용지 400장을 프린트하여 기증하였습니
다.

한인 봉사 센터 직원 이취임

한인 봉사 센터에는 그동안 수고를 해주신
편집의 이수호 씨와 상담의 지나.하 씨가
다른 직장으로 떠나게 되었고 새로운 직원
이 공석을 메꾸게 되었습니다. 편집에는
신 영은 씨가, 상담에는 지나.람슨 씨가 맡
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포 여러분의
많은 신 지도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한인 침례교회

씨애틀 한인 침례교회에서는 3월 12일 오
후 2시 30분에 성대한 헌당 예배를 갖었는
데 이 예배에는 이 지방 노회장을 비롯하
여 미국 침례교회에서 모여든 백여명에 이

르는 미국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자리를
메웠고 예배는 통역없이 영어로 일관 되었
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를 본 신도들
도 많이 있었다.

한인 연합 장로 교회

타코마에 있는 한인 연합 장로 교회는 지
난 3월 16일에 있었던 노회의 석상에서 만
장일치로 통과 되어 미국 장로 교회 올림피
아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동문회소식

경희 대학교 동문회에서는 금년도 회장에
김 상목 씨를 선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한국 코랄(한인 합창단)

단원모집

한국 코랄(한인 합창단)은 씨애틀.타코마 지
역 합창 애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 8.15
경축 음악회를 앞두고 현재 약간명의 단원을
모집중이라고 한다. 이 합창단은 작년 6월에
조직 되었으며 매월 2회(첫째,셋째 토요일 밤
7시)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며 단원
친목도 도모 한다고 한다.

연락처 : 씨애틀 255-0211, 622-9559.

타코마 472-1667.

민족 예술 제전

삼일절 및 새해를 와싱턴 주 총영사관 개관을 축하하는 우리 민족 예술 제전이 와싱턴 대학교 구내 하브 빌딩에서 한국 예술 협회 부설 고전 무용 연구소생 일동의 무용과 한국 합창단의 노래로 남 홍우 영사님을 비롯하여 한인회 이사, 임원 및 많은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내리고 곧이어 한인회와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한인봉사센터를 이용하십시오.

교포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인 봉사 센터는 작년 부터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교민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로써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교민 여러분의 불편하신 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한인 봉사 센터를 잘 이용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을 위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립니다.

본 봉사센터에는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곳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기관입니다.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근무시간은 08:30 - 17:00.

- 1. 직장 알선. 2. 법적문제 상담.
- 3. 가정문제 상담. 4. 통역 및 번역.
- 5. 병원 관계 안내. 6. 이민국 안내.
- 7. 한인 상호간 연락. 8. 한인학교 운영.

이상과 같은 사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면허 안내 책자 출판을 위한 기부금을 바랍니다.

한인회에서는 교포 여러분의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운 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운전 면허 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번역이 완성되어서 주정부의 검토만 끝나면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른 교포를 위해서라도 조금씩의 기부금을 보내 주시면 한인회의 영원한 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한글 운전 안내 책자 출판을 위한 기부금		
이름		전화
\$ _____		

1978년도 한인 주소록

교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해 오던 78년도 한인 주소록이 곧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인 회비나 기부금 납부자에게 무료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한국식품 중 앙 식품 · 선물용품 · 생필품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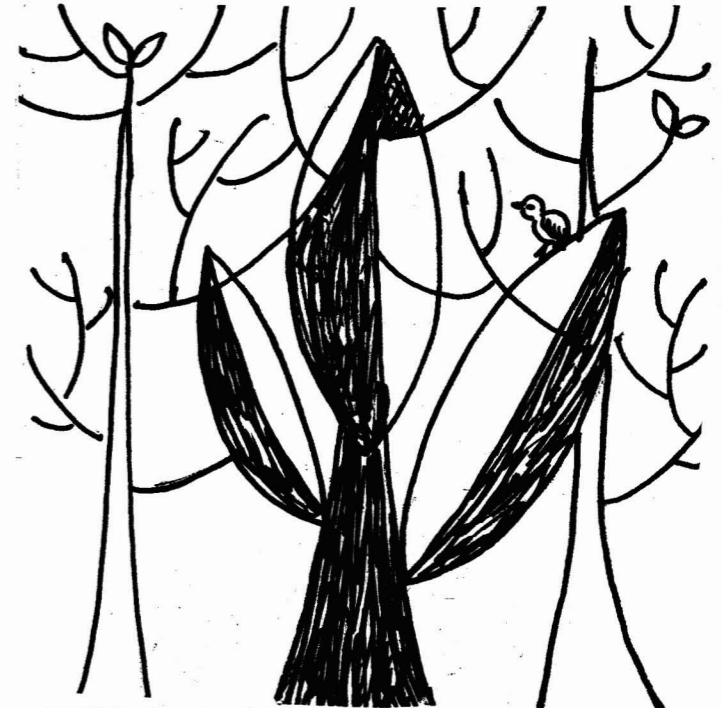
○ 친절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한국인의 정.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 주소: 9641-15th Ave. S.W. Sea.wa.
화이트센터 중심가에 있음.

○ 전화: **762-5620**

죽 시켜 주는 나라에 자살이 많은 것을 보면 인간은 밤만으로 살수 없는 동물이며 밤 이외에 그 무엇이 필요함을 압수 있다. 후토이드는 사람의 본질을 생의 본질과 죽음의 본질 두 가지로 나누었고 사람이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파괴와 공격의 두 가지 경향도 모두 죽음의 본질에서 파생된 것이다. 즉, 죽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파괴의 정신적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향할 때에는 글자 그대로 자기에 대한 살인행위 즉 자살이 될 것이며 이 에너지가 밖으로 향해질 때는 살인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과 타살의 차이는 에너지의 방향의 차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이 양자의 관계는 마치 필림의 양화와 음화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메닝거어"는 여기에 덧붙여 자살의 내면적 요소를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 즉 죽는 것, 죽이는 것, 죽히는 것(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자기를 죽이려는 살의 일때 어떤 파괴적 본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으로 깨달을 수 반하는 싸디스틱한 뜻으로가 아니라 원시적인 자기 방어적인 목적에서 나오는 살이라고 한다. 이런 경향이 건설적인 적극적 감정으로 종화 될때 한층 높은 정신적 면으로

승화되어 무엇을 만들어 내는 창조를 일으킨다고 한다. "버어맨" 같은 사람은 자살 미수자를 면접하여 분석해 본 결과 자살이란 항상 어떤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대해 죽음으로 복수하려는 것이라 보기도 한다.



둘째로는 죽음을 당하고 싶은 욕망 즉 남이 자기를 죽여 주었으면 하는 욕망이다. 누구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욕망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할때의 반응 형식으로 죽음을 달라고 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예: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부부 싸움에 날 죽여! 한다던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부모가 사주지 않을때, 그런것도 안사줄려면 차라리 날 죽여요 하는 10대의 반항이라던지) 자기가 타인으로 부터 죽음을 당하는 것을 꿈꾸는 것을 미루어 보면 이해가 간다.

(논단)

자살의 심리

어느 고풍 가정 주부의

본신 자살을 보고

곽종세

최근 20-30 만이나 되는 재미 고풍의 사회상을 말해주듯 미주판 한국 신문들을 보노라면 본국 사회면을 그대로 답아가는지 10대 불량 깡패들의 행패를 위시해서 교통사고, 강도 살인 사건에 자살사건까지 겹친 기사를 대하다 보면 신문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실은 나만의 독백이 아닐것 같다. 며칠전 신문에도 시카고에서 어느 가정 주부가 자택 지하실에서 몸에 휘발유를 부리고 본신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김모 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한국에 다니러 갔수었다는 것을 비관하여 우울증에 걸린 상태였는데 사고 당일 남편과 1 살된 아기가 뒷층에 있는 동안 지하실에 내력가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다는 속칭한 이민 생활중의 자살자의 심리를 살펴본다.

그날 남편 김씨는 지하실에서 나는 이상한 폭음 소리를 듣고 뛰어 내력가 보니 부인 몸에 불이 붙어 있고 끔찍고 했으나 부인은 휘발유를 더 부려 심한 불길 때문에 남편이 접근하지 못했다 한다. 옆집에 거주하는 미국인 '존스'씨(78세)는 이들 부부가 평소 명랑하고 친절했으며 8개월전 이

집을 사서 이사했다고 하며 부인은 직장을 그만 두고 아이만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흔히 자살의 원인을 빈곤과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난한 사람보다 중류 이상의 부유한 계층에 자살율이 많음을 본다. 6.25때 처럼 생과 사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것 같은 환경에서는 자살했다는 사람은 극히 적고 모두들 살려고 버둥댄다. 김씨 부인건만 해도 한국에 주교은 4살짜리 딸이 보고 싶다고 했고 8개월 전에 집을 사서 이사했다는 것을 보니 이민 생활3년은 지난것 같으니 그동안 두분이 억척 같이 노력한 보람으로 이제 좀 숨을 돌려 살만하니 부인도 직장에 압나가고 아이만 돌보던중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1959년 미국 사회학회 총회에서 '슈나이드만'은 그의 발표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자살율이 높다고 했고, '전쟁중에 생활이 극히 궁핍해질 때에는 자살율이 적어짐은 어떤 사회에서나 볼수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상류 계층이 하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 보다 자살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스텐켄'은 말을 했으며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미국 같이 민주적이며 평화와 번영을 자랑하는 나라의 중류 계급이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세계 보다 자살율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대해서는 기이한 느낌을 금할수 없다고 '후름'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한탄한다. 물질적 욕구를 제대로 충



어느 "카톨릭" 신자의 타종

전 카톨릭 신도임을 더 할수없는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애탁해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신께 간구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성인의 덕을 닦고 있고 자기 마음의 고요함을 좋아한다면 남을 비방하지도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기쁘게 선전할 것이고 마음 걸리는 일에는 입을 다물 것입니다.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면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감정이 폭발하던지 싸웠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합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 보기에 미안한 감이 듭니다. 반면에 거만한 마음은 증오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고 또는 학식이나 재주가 많다고 자기 보다 못한 사람을 경시 한다면 전 이런사람을 식인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만은 아담과 에와가 범한 인류의 최초의 범죄의 시작이요 지금까지의 죄의 근원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노동일을 하면서 착한 마음 갖은 사람이 많이 붙어 나기를 신께 염원 합니다. (요셉)

"시"

"내 님의 목소리"

봄 안개가 그윽한 지평선 가에
아람드리 수목 사이로 지저귀는 새소리
같이

눈이 시리도록 파아란 하늘 가에
초록을 머금은 총총한 나뭇잎 같이

호을로 걷고 있는 좁다란 오솔길목에
어데선가 보일 듯한 내 님의 미소여

등그락미 본수소리와 더불어
어데선가 들릴 듯한 내 님의 목소리

가만히 흔들리는 진분홍 꽃잎파리는
내 작은 등구 속에 포근히 안겨 주는듯
잔잔한 호흡 속으로 밀려드는 공간...

무어라고 말을 할까
보고 싶다고 할까 그림다고 말을 할까

언젠가 가만히 일러 주던 나직한 목소리
언젠가 조용히 전락 주던 따듯한 미소

내 작은 가슴 속에 묻히고 이제는
바라보는 파아란 공간...

Korea Center Market

616 6th Avenue South, Seattle, W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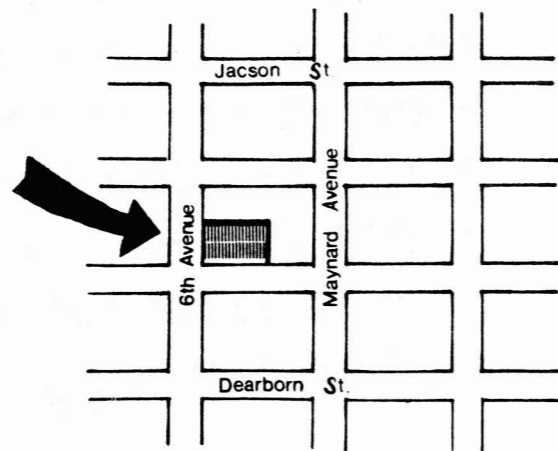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은 사랑속에서 낯이 밝아지는 "코리아 센터"는
 와싱턴주 모든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오며 가너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 코리아 센터 —

코리아 센터 약도



KOREA CENTER MARKET

612 6th AVE. S.
 SEATTLE WASH.
 98104

682-9092



March 1978

The Magazine of Western Living
 ...afflic, new Vietnamese
 town and Pioneer Square



Tough decision—customer ponders the merits of a dozen different fish sauces at Vietnamese grocery

New Oriental shopping next door to Kingdome

When it opened nearly two years ago, Seattle's King County Domed Stadium (Kingdome) was widely regarded as a threat to Chinatown, just a few blocks away and one of the city's liveliest ethnic neighborhoods.

Critics feared that the giant multipurpose stadium would inundate the area with traffic and crowds, drive rents up and customers away, and overrun a genuine community with shoddy, fast-buck tourism.

Fortunately, the worst predictions have failed to materialize. If anything, the International District (with a population of Chinese, Japanese, Korean, Vietnamese, and Filipinos) seems to be thriving. One recent example of the district's continuing vitality is the appearance of two new Oriental food markets. Even if you don't do Oriental cooking yourself, it might be fun to visit one or both on your next trip to Chinatown, just to

see the extraordinary variety of unusual foods.

Korean Center, 616 Sixth Avenue S., claims to be the largest Korean grocery store north of Los Angeles. Samples of its merchandise: fresh kimchee, garlic stalk, and peppers prepared on the premises; imported fish and seaweeds, fresh squid, pickled vegetables, and dried soup stocks. Open Monday through Saturday, 9 to 8:30; Sunday 11 to 5:30.

미국의 유명한 Sunset 잡지 3월호에 우리의 자랑인 "코리아 센터"가 소개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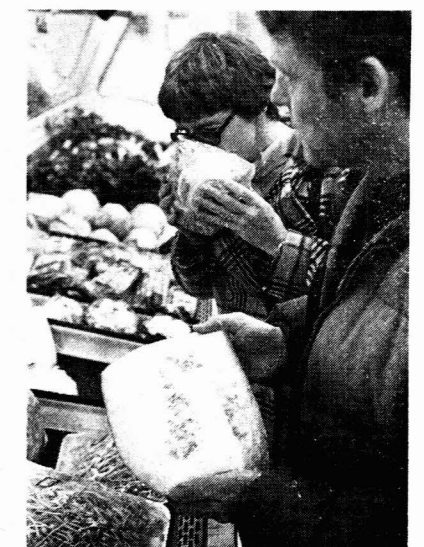


Banners quote Korean newspapers and businesses, congratulating store on recent opening

LARRY BULLIS



Dried, salt-cured cod from Korea (part of a large selection of fresh and prepared fish) sells for about \$1.80 per p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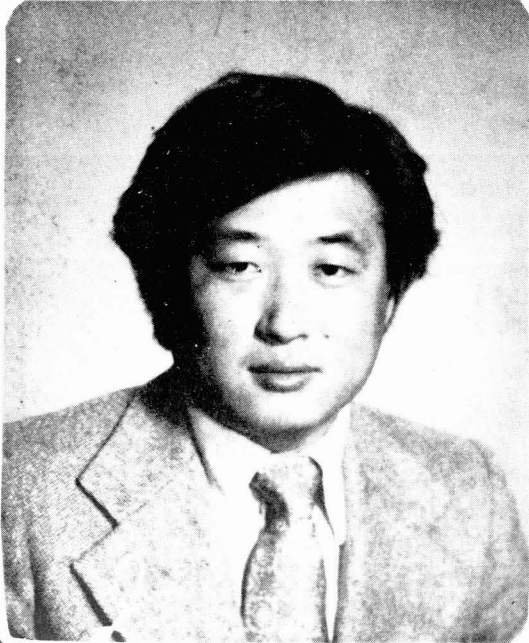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duce: One shopper sniffs squash, the other squeezes winter melon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謹賀新年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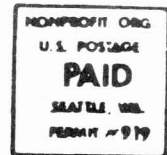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 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0505 00000314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